

# 괘도의 풍물

홍성유 <소설가>

**괘**도는 서태평양의 낙도다. 그러나 아무리 낙도라 하지만 마리아나군도의 중심이 되는 최대의 섬이다.

가을도 겨울도 없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섭시 23도에서 33도를 유지하는 상하(常夏)의 나라다.

푸른 파도, 은빛 모래, 도처에서 바다다 보이는 절벽의 장엄한 아름다움, 태고부터 지녀온 자연미로 하여 괘은 환상의 섬, 「태평양의 낙원」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하와이 역시 태평양의 낙원으로 상하의 나라라고 불리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으로 너무 멀고 심한 시차(時差)로 하여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괘은 지역적으로도 훨씬 가깝고, 시차도 서울보다 불과 1시간이 빠를 뿐이어서 훨씬 편리하다. 때문에 최근 괘은 제2의 하와이로 도약해 가면서 꿈의 섬이 되어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괘을 여행한 한국관광객 숫자는 88년도에 2천44명이었으나, 89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4천5백14명에 이르렀다 하며, 90년 올해에는 더욱 더 증가할 기세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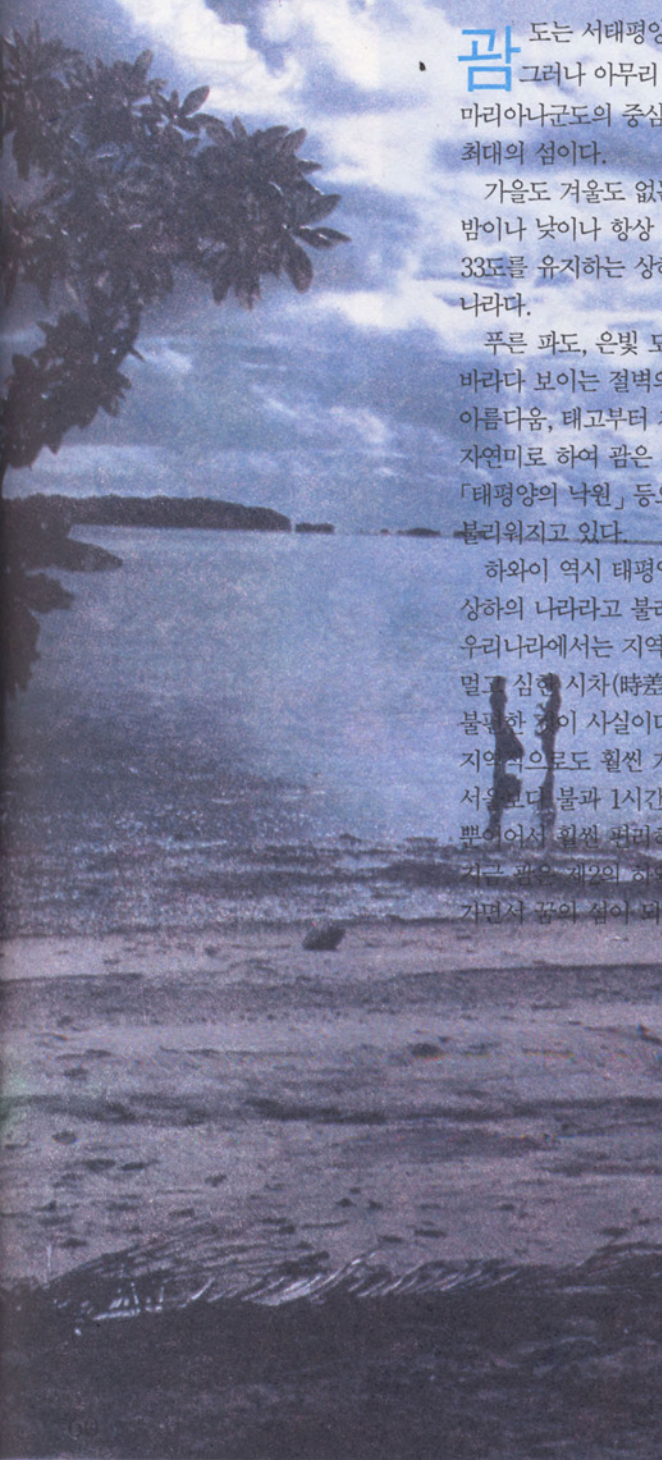
이것은 앞서 말한대로 괘도 자체가 태고로부터 간직해 온 자연미 때문임은 말할 것이 없다.

## ■ 회색색 그늘속의 괘

그러나 나의 기억속의 괘은 것처럼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회색빛 그늘 밑에 가라앉아 있는 곳이다.

괘은 태평양전쟁의 격전지로서, 인접한 사이판도와 함께 떠오르는 상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나는 구세대에 속하는 인물인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인 태평양전쟁은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발발했지만, 바로 이날 괘은 일본공군의 공습을



받는다.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에  
괘은 일본군에게 점령당한다.

이후 괘은 종전 전체인 44년  
7월, 미군에 의해 재탈환될 때까지  
일본군의 엄격한 통치하에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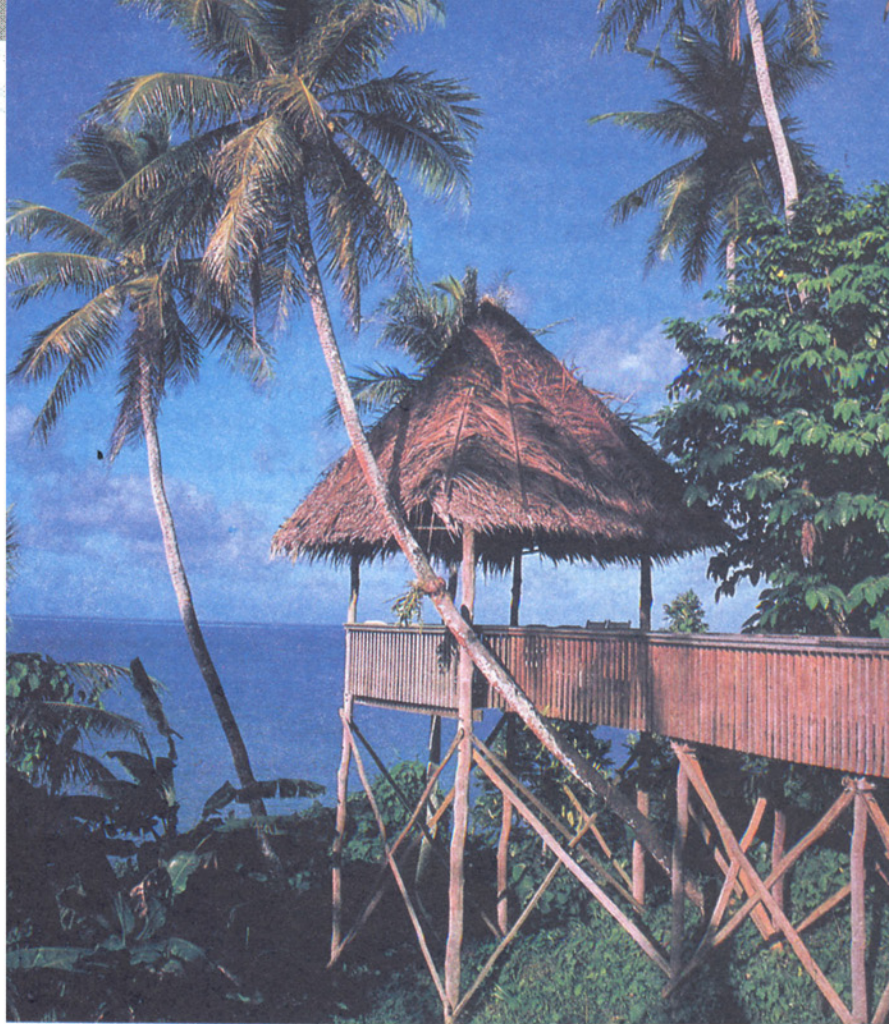
괘 탈환에 앞선 1944년 6월  
15일, 미군은 이웃한 사이판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일본군을 전멸시키기에 이르렀다.  
일본인은 이를 옥쇄(玉碎)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멸된 것은  
침략자로서 응당 당해야 할 응오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때  
징병·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한국인은 이유없이 수없는 희생을  
당했다.

지금도 사이판에는 한국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탑이 있다.

미군이 일본으로 부터 괘을  
재탈환한 며칠 후, 미군은 벌써  
비행장·항만·가설주택을  
건설하고, 일본 본토폭격용의  
B19기를 수납할 격납고를 만들어  
괘은 급격한 변모를 하게 된다.

이야기가 어찌 되었거나, 이  
두번의 전투에서만도 피아의  
전사자가 2만이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상의 비참한 흔적은  
괘도 도처에 남아 있어  
태평양국립공원 전적지로서 관광  
명소의 일부로 남아 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전적지에 많은  
관심이 있는 듯 하고, 감회 또한  
새삼스러운 듯 싶다. 하지만  
우리는 것처럼 절실할 것이  
없다. 대신 우리는 곳곳에 널려있는  
그 태고연한 아름다운 자연에  
눈길이 간다.

### ■ 짧은 세월 긴 역사

면적 5백49평방킬로미터의 괘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로  
길이 48킬로미터,

폭6~14킬로미터의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다.

남부는 400미터에 이르는



산으로, 북부는 150미터내외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에는 거초(樞礁)가 발달되어 있다.

북서안의 아가냐에 정청이 있으며, 아가냐의 서쪽에는 천연의 양항인 아프리카항이 있고, 그 동쪽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원주민은 차모로족(族)으로 야자·카카오·사탕수수·커피·쌀·옥수수·열대성과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유럽인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약 10만 이상의 인구가 이미 질서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높은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521년 스페인의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괌도를 발견하고 우마타이란 마을에 상륙한 이후, 스페인의 영토로 통치되었다.

이후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끝에 미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앞서에서 언급했듯이 태평양전쟁 중에는 한때 일본에 점령되는 시련을 겪은 일도 있었다. 1962년 미국 신탁통치령의 행정중심지가 사이판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괌이 그 중심이 되어 있었다.

현재 전략적인 위치상 미국측의 중요한 해군·공군기지를 이루고 있으며, 마리아나제도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할 뿐더러 태평양 횡단 정기항공로의 중계기지로써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6·25 한국동란 당시, 트루만 미국 대통령과 맥아더장군의 역사적인 회견이 괌에서 이루어졌었음은 우리의 기억에도 새롭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맑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새로운 관광지로서 부쩍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 ■ 미국영토, 일본소유(?)

괌여행의 불을 붙인 것은 아무래도 일본인들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맑은 분명 미국영토이지만 일본인 관광객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한국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고는 하지만, 불과 5천명 미만인 것에 비해, 일본 관광객이 작년도 전체 관광객 66만8천여명중 84%가 되는 55만6천명에 이르렀다는 것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괌의 우수한 호텔인 패시픽스타호텔, 힐튼호텔, 다이이치호텔, 오키라호텔 등 일급호텔은 모두 일본인 소유일 뿐더러 유명식당, 백화점, 면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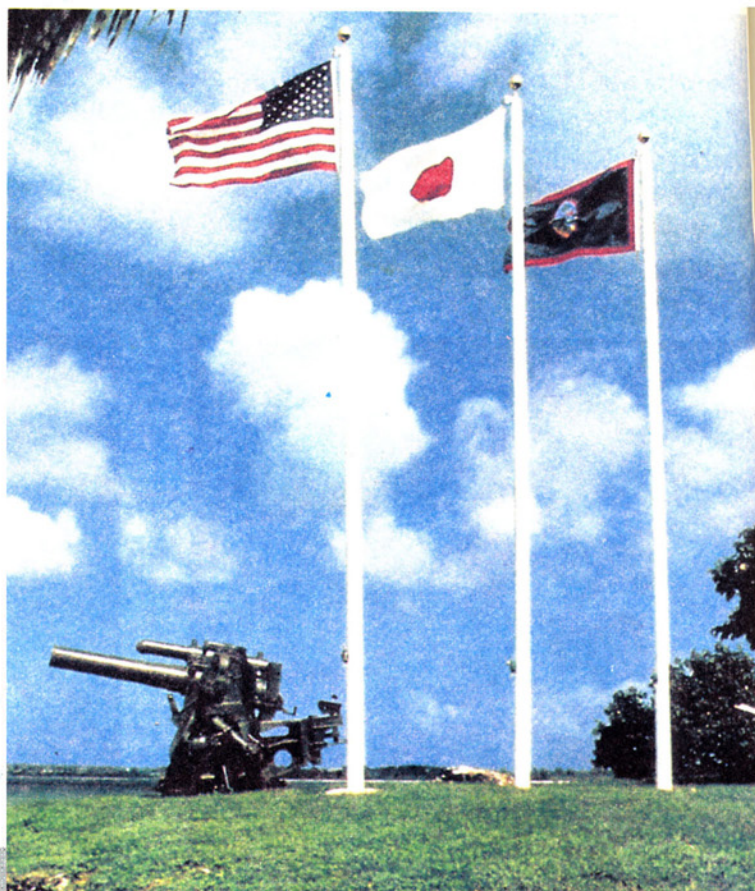
등 온갖 상권을 이들이 휘어잡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이란 땅은 마구 사들여 괌의 땅값을 치솟게 하고 있을 뿐더러 미야마(深山)란 건설회사는 무려 1백50만평에 이르는 대지를 사들여 8억달러를 투입하여 현재 호텔, 빌딩, 골프장 등 일대 레저타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도 일찍이 괌으로 진출하여 아파트 등 건설공사에 손을 댔었으나, 재미를 보지 못한듯 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대기업들이 속속 괌에 진출, 광역한 지역의 땅을 구입하기도 했고,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등 활발한 건설공사에 착수를 했다.

보도에 의하면, H개발에서는 1년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토지를 일본인들의 농간으로 2천만달러에 구입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했는데, 1년 후인



현재의 시가(時價)는 물경 10배로 뛰어 2억달러를 호가(呼價)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다른 건설업체인 L개발에서도 현지 대지주와 합작,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파이단 지역의 폐적한 구릉위에 7천6백평 면적에 계약금 6천3백만달러로 218실 규모의 콘도미니움과 부대시설 건축공사를 착수했고, 곧 136만평 규모의 완만한 구릉지역에 호텔, 콘도미니움, 골프장, 인공호수, 운동장, 공원을 두루 갖춘 대규모 레저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한국이 괌에 어떠한 매력을 느껴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에도 언급한 것처럼 자연경관과 환경이 뛰어나고 하와이 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다시없는 관광지로서의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 순수, 그 분명한 自然美

우선 잘 포장된 일주도로를 돌면서 여러 명승·고적지를 둘러 보는 것만으로도 관광의 가치가 있다.

절벽위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며 연인들끼리 투신자살을 했다는 비화가 있는 「투·러버즈 포인트」(戀人峰 = 사랑의 절벽), F·마젤란이 최초로 상륙한 아름다운 우마탁 마을과 절벽위의 소래다트캐, 순백의 새하얀 모래사장이 이어져 있는 고고스섬과 스페인의 추억이 남겨진 고적과 아나라한의 천연 풀장, 페밀리비취, 라잘비취 등등 일일이 예로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매혹적인 것은 심해낚시일 것이다. 호화스런 시설을 갖춘 낚시배를 타고 고발트 물살을 가르며 남양 특유의 대어를 낚는 쾌감은 무엇으로 비길 것인가.

괌의 남서해안쪽 아프라항에서 30여분쯤 나가 낚시도 즐기고 물안경과 호흡파이프만으로 산호와 열대어를 구경할 수 있는 바다밑의 절경.

물론 태평양클럽 등 도처의 골프장에서 초원과 바다를 바라다 보면서 골프를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괌에서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의 하나는 살아있는 라브스타(바다가재)를 위시해서 참치회와 부드러운 맛이며, 각종의 신선한 어패류를 비교적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식의 본격적인 바베큐 요리, 상싱한 재료를 사용하는 일본요리, 중국요리, 스페인요리로 얼마든지 선택해서 즐길 수 있지만 팔푼만한 크기의 부드러운 왕갈비가 나오는 한국요리도 만날 수 있다.

참고로 본격과 한국요리점 「코리아 타운」이 있다.

1백7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이 음식점의 식단은 다양해서 갈비를 위시해서, 각종 생선회,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에 왕새우, 닭고기, 참치 등등 30여종의 별미를 맛볼 수 있다. 다이아몬드호텔에서 비취도로를 건너 사이판컨트리클럽 맞은 편에 있다.

이러한 관광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서울에서 괌까지 직통의 항공편이 없다는 것이 흠이다.

일본 동경과 사이판을 거쳐 괌에 이르는 KAL과 노스웨스트 편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괌으로의 관광객이 격증하는 추세에 따라 머지 않아 직행항공편이 개설될 것이며, 불과 4~5시간이면 어렵지 않게 남국의 신비한 자연 정관속에 묻힐 수 있게 될 것이다. ☉

